

인터뷰 - 전국여성농민회 총연맹 임순분 회장

“조직 확산 사업에 주력할 터”

경북 상주읍에서 국도 30분, 비포장길 2km를 달려가는 작은 산골마을에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전 전국여성농민위원회) 3대 총장 임순분 씨(40)가 살고 있다.

경북여성농민위원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는 임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정당초청농어촌공약토론회에 참석, 각 정당에 농어촌 타아·육아문제 및 모자보건센터, 산모원 설립 등을 요구하고 여성농민 영농후계자 혜택 촉구도 해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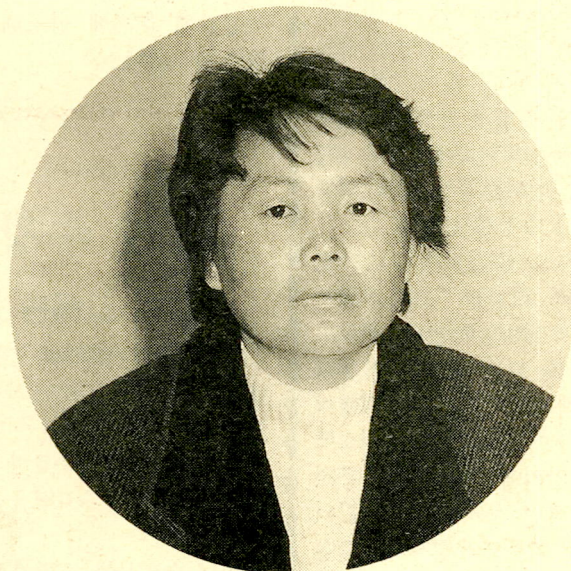
바쁜 농사일과 전국조직전인의 역할이 힘겨워 보이지만 ‘내 손 하나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고된 줄을 모른다는 임 회장을 만나보았다.

△회장 취임소감은?

—땅만 파던 내가 전국여성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두렵기는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촌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장점을 살려 열심히 일할 생각이다.

△올해 전여총의 주요 과제는?

—조직확산 사업에 무엇보다도 주력해야 할 시기다. 현재는 전남, 전북, 경남, 충남의 4개도



에 여성농민회가 있고 군단위 조직은 해남, 강진, 여주, 부여, 순창을 비롯한 17개군만 회원단체로 가입돼 있어 조직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89년에 출범한 전국여농의 조직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된 원인은?

—농촌현장에서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농민들의 활동상은 그간 고추·수세·쌀싸움을 통해 익히 알려져 온 터다. 그러나 여성농민들 대다수는 체계적인 조직구성에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못 배운 내가 어떻게...’라는 자기

비하가 은연 중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경북여농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은?

—전통적 남성우월주의가 강한 경북의 특징이 농민운동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곱게 보지않은 탓에 조직의 실천력 확보가 어려웠다.

△임 회장이 농민운동의 선두에 선 것에 대한 남편의 반응은?

—남편보다 5년 먼저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그때는 썩 마땅

해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함께 뛰는 동지로 든든한 힘이 돼 주고 있다.

△일부 도시 주부들이 수입쌀을 먹고 있다는 보도에 접했을 때의 심정은?

—분노보다는 서글펐다. 쌀 소비자들에게 우리 쌀의 장점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부른 결과다. 앞으로 도시 여성단체와 연대해 농산물직거래운동을 꾸준히 벌여나가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여성 농민의 힘으로 이뤄내겠다.

올해 선거를 맞아 임순분 회장은 단단한 각오를 내보인다. 정부의 수입개방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은 여당 그 어느 후보자에게도 표를 찍지 말자는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에나 겨우 잠자리에 든다는 깡마른 체구의 평범한 시골아낙, 그러나 연약해 보이는 임 회장의 외모와는 달리 웅골찬 다짐새가 올해의 전여총의 활약에 기대를 걸게 한다.

(김명순 기자)